

# 익산의 관문 '새 이름 입다'

### 여산휴게소 → '익산미륵사지 휴게소'로 명칭 변경... 백제왕도 정체성 알리는 상징적 이정표

익산시가 '미륵사지'를 고속도로 관문에 새기며 백제왕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상징적 이정표를 세웠다.

익산시는 11일 옛 여산휴게소의 새로운 이름 '익산미륵사지휴게소'를 알리는 제막식을 휴게소 상행선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시가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2020년부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해 온 끝에 성사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공사의 명칭 변경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여산면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명칭 변경에 대응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지역 간 상생과 배려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제막식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여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미륵사지의 도시 익산을 상징하는 간판 제작 퍼포먼스와 함께 감사패 전달,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정하는 간판 제작 퍼포먼스와 함께 감사패 전달,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공연에는 익산시 홍보대사 장영우를 비롯해 익산시립풍물단, 여산부사관학교 군악대 등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홍보부스와 로컬푸드 판매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익산의 농특산물과 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시는 간판 제막을 계기로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익산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홍보 플랫폼으로 휴게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한(韓)문화의 발상지이자 찬란한 백제 문화의 중심지인 익산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인 미륵사지를 고속도로 관문에 새겼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명칭 변경이 익산의 관광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운영 청렴도 제고 '쟁걸음'

###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5개 법령 일괄 개정 등

익산시의회가 자치법규에 내재해 온 불합리한 규정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의회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등 5개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한 공직 심사를 위한 외부 위원 위촉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 위촉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여비 부당 수령시 환수

금액 강제징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제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익산시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속에 성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오는 6월 24일 개최되는 제2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소상공인 솜품 제작 본격 지원

### 군산시청 동호회 '라이프 필름', 기획·촬영·편집 수행

군산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솜품 제작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솜품)를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드 및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군산시청 동호회인 '라이프 필름'이 중심이 되어 기획·촬영·편집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5개 관내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 중 '배달의명수' 신규 가입 업소는 9곳, 기존 가입 업소는 10곳이며

아직 미가입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가맹 안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촬영과 영상 제작이 진행되며, 완성된 영상은 온라인 SNS 계정과 '배달의명수' 홍보 채널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에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량과 시민 참여를 결합한 민간 협력형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육군부사관학교, 주민 복지 증진 맞손

### 내달부터 부사관학교 내 체육관·도서관 등 주민에게 개방

익산시가 육군부사관학교와 손잡고 지역 복지 증진에 나섰다.

익산시는 11일 여산면에 위치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문화·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사관학교가 보유한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민·관·군의 상생 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개방 대상 시설은 학록도서관, 계백관(체육관), 국립전사박물관, 계백공원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다. 익산시와 부사관학교는 협약 이후 세부 행정절

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설 개방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작성하면, 위병소 옆 별도 출입구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경중 학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대가 지역사회에 보다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익산시와 상생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우수지자체 수상

익산시가 지역사회의 따뜻한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내며 나눔 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11일 전주시 치명자 산성지 평화의집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했으며, 캠페인 기간 나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지자체·공무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익산시는 수상의 영예와 함께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비는 위기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한국 풍력

### 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참가

국립군산대학교가 오는 18일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사)한국 풍력에너지학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 5개의 기획세션을 구성해 참가한다.

국립군산대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혁신연구센터(이하 혁신연구센터)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관련 기획세션 3개와 풍력발전 분야의 국제표준 및 인증 대응을 위한 세션 2개로 구성하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과 공동으로 '풍력발전 표준화 포럼' 및 '국제표준 대응 전문가네트워크' 2개 기획세션을 통해 풍력분야 표준화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차세대 풍력발전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위한 지식 공유와 정책 기반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초대용량 풍력기술, 해상 풍력단지 운영 및 유지보수, 인증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학·연 협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군산대 초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혁신연구센터 사업은 석·박사과정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 방축도 주민이 직접 찍은 '필름 사진전'

### '내 마음의 방파제' 상설 전시... 명도·말도에서도 순차 개최 예정



군산시는 고군산 K-관광섬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방축도 주민 사진전 '내 마음의 방파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방축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파도와 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불어진 이름으로 밭치, 바지락, 소라, 농어 등 해산물이 풍부하며 출렁다리, 독립문 바위, 동백숲길, 고인돌 등 다양한 관광명소를 자랑한다.

이번 사진전은 군산 K-관광섬 용역사인 모라비안앤코와 함께 기획한 행사로 방축도 주민들이 직접 필름 카메라를 들고 섬 곳곳을 담아낸 주민참여형 사진 아카이빙 전시이다.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시는 이번 방축도 사진전을 시작으로 명도, 말도 주민 사진전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추후 시내 일원에서 고군산 K-관광섬 합동 사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사진전이 섬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섬 주민 스스로 기록가 겸 예술가가 되어 방축도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널리 알리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참여를 통해 섬의 삶과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내 마음의 방파제' 방축도 사진전은 방축도 위케이션 센터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된 K-관광섬의 말도·명도·방축도(고군산 섬잇길) 걷기여행(트레킹) 코스를 중심으로 방문객 편의시설 구축, 주민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명품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